

해외전력

산업재편을 지렛대로 추진되는 러시아의 대규모 원자력개발

1. 원자력 계획의 책정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006년 5월 10일, 연방의회에 대한 연차대통령교서의 연설에서 교서로서는 처음으로 원자력개발과 원자력산업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2006년 1월말 이후, 2030년까지 40기의 원자로를 건설하여 원자력발전량 세어를 25%까지 끌어 올리는(2005년은 16%) 대규모의 원자력 구상에 관하여 발언하여 왔고, 이 교서연설에서 원자력에 대한 추진의지를 뚜렷하게 하였다. 교서에서는 높은 안전성을 구비한 차세대원자로에 의거한 원자력 개발, 그리고 국제시장에서의 러시아 원자력기기 메이커의 지위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러시아의 원자력산업 자체의 재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표시하였다.

대통령의 의향을 받아 연방목표계획인 「2007년~2010년 및 2015년까지 전망한 러시아의 원자력산업 발전」(「2015년 목표계획」이라 함)이 책정되고 2006년 10월 6일 각의에서 승인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원자력의 화석연료 대체로서의 역할이 환경대책면과 산업정책면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 원자력 자체를 수출상품으로 보고 국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함으로써 러시아 원자력산업의 국제시장에의 복권을 이룩하고, 동시에 수출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국내 원자력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도 나타내고 있다.

원자력의 신규 개발에 있어서는 신형로의 시리즈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리즈 생산되는 이 원자로는 국외시장에 투입되는 전략상품으로서 러시아의 실지(失地) 만회에 유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상으로는 2015년에까지 원자로 10기(980만 kW이상)의 운전개시, 10기의 착공이 기대되고 있다.

러시아의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료사이클 사업과 원자력발전, 기기제작, 연구개발 등 각 부문의 기업·조직을 통합할 기술 제휴의 부흥이 필요하며 그것을 보증할 조직의 설립이 요구되었다. 실제로 2015년 목표계획에서도 원자력산업의 조직 재편이 대규모의 원자력 개발을 떠받쳐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원자력개발 계획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자력산업의 조직 재편은 피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

2. 원자력의 조직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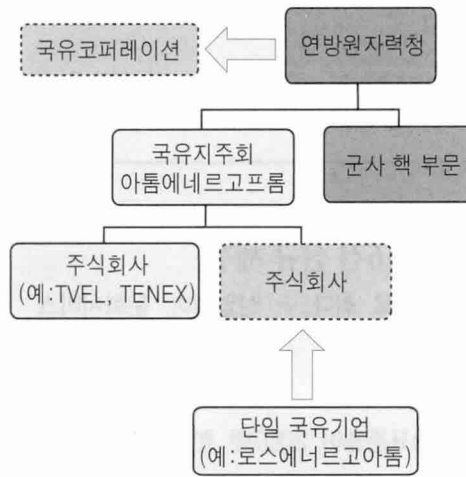
이렇게해서 원자력산업의 조직 재편은 대규모의 원자력 계획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될 시책으로 검토되어 왔다. 그 결과 민생 원자력부문을 수직통합하여 국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 결정되어 연방법과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세계적으로 이미 원자력산업의 국경을 초월한 재편이 진행되고 있으며 거대 기업그룹이 존재하고 있다.

러시아 기업이 세계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수직통합의 재편이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원자력산업 재편의 근거가 되는 연방법이 「원자력자산관리법」은 2007년 2월 5일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 법률의 포인트는 민생 원자력부문과 핵병기부문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이 법의 적용범위를 전자에 한정하는 것이다. 지난 4월 27일에 대통령령 「러시아연방의 원자력산업의 재편에 관하여」가 공포되어, 공개형 주식회사로 되는 아톰에네르그프롬 사의 설립과 이 회사의 전 주식을 연방보유로 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또한, 이 「원자력자산관리법」에 있어서 최초의 절차가 된 아톰에네르그프롬 사의 정관 자본에 연방자본으로서 이월시키는 기업 명단도 첨부되었다. 이렇게해서 아톰에네르그프롬 사는 2007년 7월 7일 정부 결정에 의한 정관 승인과 이사회 멤버 5명 및 감사위원회 선임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이사회 의장에는 연방 원자력청 키리엔코 장관이, 사장에는 이 청의 트라빈 부장관이 취임하였다. 그 외 3명은 연방정부관제 부장관인 보로프코프씨와 에리푸모프씨, 카멘스



〈그림〉 재편후의 러시아 원자력산업(예상)

키프씨 등이다.

더욱이 아톰에네르그프롬 사와 핵병기부문을 포함한 원자력의 전 부문을 관리하는 국유코퍼레이션이 설립된다. 이 조직의 설립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심의되고 지난 11월 9월에 하원에서 채택되었다. 연방원자력청의 약칭 ROSATOM을 관장하는 이 조직은 핵병기부문의 기업 및 기초연구의 자산과 핵·방사성안전시설의 자산이 이관되어 신설 아톰에네르그프롬 사의 전 주식도 관리된다고 한다. 이러한 기구의 설립은, 이 부문에 대한 국가 관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그 산하의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원자력시장에서의 복권을 포함하여 러시아 원자력산업이 재흥(再興)에 박차를 가하는 노력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된다.

(출처: 일본전기협회 발행 「전기협회보」)